

정보화 시대에 ‘책읽는 학교’ 만들기의 방안

The Promotion of Reading Books at the Public School in the Age of Information Technology

송 정 숙(Song, Jung Sook)*

〈목 차〉

- | | |
|--------------------------|-----------------|
| I. 서론 | 1. 사서교사의 필요성 |
| II. 정보화 시대와 책읽기 | 2. 학교도서관의 확충 |
| 1.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상 | 3. 책읽기 장려 운동 전개 |
| 2. 정보화 시대의 책읽기 | 4. 책읽기 지도의 방법 |
| III. ‘책읽는 학교’ 만들기의 실천 방안 | IV. 결론 |

초 록

이 논문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실에 컴퓨터를 들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교육정보화사업보다 책읽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책읽기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 TV시청과 인터넷 사용은 창의성 개발과 건전한 인격형성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재는 책과 책읽기에 의해 육성될 수 있으므로 책읽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확보하고, 장서를 확충하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임을 실례를 들어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에서는 책 읽어주기 운동, 아침10분 독서운동, 책의 바다에 빠뜨리기 운동 등 책읽기 장려운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책읽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책의 종류와 책읽는 목적에 알맞은 책읽기 지도를 병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책, 책읽기, 독서, TV 시청, 인터넷, 독서지도, 책읽는 학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romotion of reading books at the public school. The promotion of reading books at the school is more important and useful for students than the Educational Information Project, which is setting computers and the Internet at the public school. Because watching TV and navigating the internet without reading books is not good for students to exercise creativity and sound personality.

To promote reading books at the school, at first, schools need to hire librarian-teachers, and build collection at school libraries as explained. And then schools need to conduct campaigns for promoting reading books, such as reading books for students, reading books for 10 minutes every morning, and book flood program. In addition, the lesson on reading instruction will be helpful.

Key Words : book, reading books, reading instruction, school library, internet,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songjs@pusan.ac.kr)

• 접수일 : 2002. 8. 21 • 최초심사일 : 2002. 8. 28 • 최종심사일 : 2002. 8. 30

I. 서 론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이 받은 된다’, ‘ $1/2 + 1/3 = 1/5$ 이라고 답하는 고등학생이 있다’, ‘선생님이 체벌을 가하자 급우들 여러 명이 휴대폰으로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 ‘폭력이 무서워 학교에 가기 싫다’. 이런 말들은 학교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교실붕괴’, ‘학교붕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입시제도도 고치고 교육과정도 개정하며, 1단계(1996-2000)·2단계(2001-2005)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사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교실에 프로젝션 TV와 컴퓨터를 들고, 인터넷을 연결한 것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교과 지도와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는 알맞은 책과 학생들이 수행평가 준비에 필요한 자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할 논술고사 준비를 위한 자료, 즉 과제 준비에서부터 즐기기 위한 독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보욕구를 충족할 학교도서관이 없는 초중고등학교가 전체의 1/5이나 된다. 실령 있더라도 늘 문은 잠겨있고, 사서교사도, 읽을 책도 없는 학교도서관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을 보면 “애들아, 책은 읽지 않아도 되니 TV나 보고 인터넷이나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 지식정보사회에 대처할 창의적인 인물이 될 것이니라.”라고 국가가 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일련의 사실들을 접하면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기본을 도외시하고 첨단만을 강조하며, 인문학적인 소양은 도외시한 채 기술만 맹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첨단적인 것이 가치가 있고, 투자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로 보아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과연 창의적인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지, 인터넷 하느라고 볼 시간도 없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책이 여전히 중요한지, 그리고 아직도 책을 읽어야 하는지, 책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TV 시청과 인터넷만 열심히 하면 되는지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문맹은 적어도 책맹은 많다는 이즈음, 학생들이 즐겨 책을 읽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사서교사의 배치, 학교도서관의 확충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책을 읽도록 장려하는 운동과 책읽기 지도의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정보화 시대와 책읽기

1.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상

자본과 노동력이 재화를 창출하는 20세기 산업사회가 가고, 지식과 정보가 재화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사회가 온다고 한다. 지금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정보혁명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말부터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키워드는 분명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다. 정보기술이 지식정보사회를 가져온다는 믿음은 국가적 꿈으로 신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1996년부터 2000년 말까지 총 1조 4,39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1만 64곳의 학교에 1만 2,897곳의 컴퓨터 실습실을 설치하여 43만 1,981대의 PC를 보급하였다. 또 34만 854명의 교원 모두에게 PC를 지급했으며, 22만 2,146개 교실에 PC를 한 대씩 설치하는 등 총 1백만대에 육박하는 PC를 교육현장에 보급하였다. 그리고 모든 학교의 컴퓨터실에는 물론 교실까지 인터넷이 깔리고 교사 모두에게 컴퓨터가 지급된 것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세계 최초이다. 외형적으로는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교육정보화 수준이 앞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¹⁾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1단계 교육정보화 계획이 2000년 완료된 기반 위에 초·중·고교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전 국민 ICT 활용능력 신장,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전자교육행정 구현 등에 중점을 둔 '제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방안(2001-2005)'을 확정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3조 2,874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2001년 5월 21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2005년까지 초·중·고교의 PC 1대당 학생수를 현행의 8명 수준에서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속도도 현재 512Kbps 수준에서 2Mbps 이상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 방안을 통해 지식기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재육성과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²⁾

그러나 교실에 컴퓨터가 놓이고 인터넷이 깔린다고 해서 교육현장이 정보화되어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사출신인 래리 큐반 교수는 1920년대부터 학교에 투입된 수많은 교육기자재들을 역사

1) 초중고 인터넷망 연결 완료-세계 최초...34만 교사 전원 PC 지급, 「경향신문」, 2001.4.21. 2면.

2)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2001-2005)」 확정, 교육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1470번), {<http://www.moe.go.kr/>} [2001.11.1]

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새로운 기자재가 출시될 때마다 당장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는데, 정작 교사들은 이러한 기자재의 사용을 회피해 왔고 학습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원인은 이러한 변화의 주체세력이 교사와는 무관한 외부에서 왔기 때문이다. 즉 교사들은 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행정가들의 탁상공론이 실행에 옮겨졌고, 결과적으로 실효성도 없는 사업에 엄청난 자금만 낭비한 셈인 것이다. 교육정보화사업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쩐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³⁾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정보화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살아남는 노아의 방주처럼 인류의 구원을 보장하는 복음으로 선전되고 있다. 정보화에 앞서기 위해 어린아이에게 영어와 인터넷을 보급하자는 발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네트는 하드웨어일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를 보급한다고 해서, 각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숫자가 곧 정보화를 대표하는 척도도 아니다.⁴⁾

따라서 교실에 컴퓨터를 놓고 인터넷을 연결하면 정보화가 이루어진다는 도식적인 믿음은 사실 위험한 것이다. 단순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그 사회의 지식정보화 여부를 가늠하고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은 정보기술도 그 쓰임새에 따라 '정보적'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철저히 '비정보적'이 될 수도 있다. 양적 보급이 질적 쓰임새로 연결될 때라야만 정보화 사회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간, 계층간, 지역간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 뿐만이 아니다. 보다 긴요한 것은 정보 테크놀로지와 전통적 인쇄매체인 '책'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체간 격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정보 기술의 보급은 선진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독서량은 일본 등 선진국 국민에 비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독서 시간은 그에 반비례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가뜩이나 책을 읽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이 알량한 독서 시간마저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가 책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책과 독서를 몰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차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책을 읽는 사람은 컴퓨터를 '정보적'으로 쓸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컴퓨터를 '비정보적'으로 쓰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지식'과 '정보'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 현대판 지식정보사회의 역설이다. 전국 어느 곳이든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되고 펜티엄Ⅳ 컴퓨터가 모든 가정에 보급되어 있어도 인문사회과학적 풍

3) 변호승, 컴퓨터 수업' 유용한가, 「한국교육신문」, 2001.4.2.

4) 백옥인,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8), pp.59-60.

토와 기반이 없는 한 지식정보사회는 오지 않는다.

물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의 확대는 유익한 정보의 교환과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등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크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은 문제해결이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활용, 저장하기 위한 정보 테크놀로지로서 컴퓨터를 활용하기보다는 게임이나 채팅 등 여가활용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서 얻는 즐거움과, 대신 그 시간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거나 운동을 하면서 얻는 이득을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나을까? 그러므로 진정한 지식정보사회를 이루려면 "너도나도 컴퓨터", "자나깨나 인터넷"을 합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날 보다 필요한 것은 정보 테크놀로지 캠페인이 아니라 오히려 독서 캠페인이다. 책 없이 인터넷만으로 지식정보사회가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컴퓨터만 믿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히지 않는다면, 자칫 그들의 영혼과 미래를 '그릇된 정보사회'에 팔아 넘기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⁵⁾

따라서 교육정보화사업이 목적하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하려면 기본인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책읽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즉 학교도서관 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2. 정보화 시대의 책읽기

가. 책과 책읽기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도 책은 계속 유용할까?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일부에서는 '책이 사라질 것이다', '도서관에서 종이로 된 책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움베르토 에코는 사막을 여행할 때 낙타의 등에 싣고 갈 수도 있고, 텐트 안에서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책은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⁶⁾ 즉 종이로 된 책은 하이퍼텍스트에 비해 우선 장소나 시간에 거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반면 컴퓨터의 하이퍼텍스트는 우선 전기의 공급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충격에도 약하고 내구성도 떨어진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이퍼텍스트가 결코 전통적인 텍스트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⁷⁾

매체의 내구성을 볼 때에도 전자매체는 인쇄매체에 미치지 못한다. 기록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란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려는 도전의 역사였다. 시공의 제약을 초월하여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것도 기록된 매체의 내구성 덕분이다. 새로운 기술의 진전은 좀 더 쉽

5) 박승관, 인터넷 보급이 정보화는 아니다, 「주간동아」, 제257호(2000.11.2.).

6) 김정근·김종성, "계몽의 아침에 꾸는 악몽, 김정근 편저, 「디지털 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 민음사, 1997), p.44.

7) 김정근·이용재, 도서관과 사이버스페이스, 윗책, p.192.

계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항구적이다. 전자매체에 담긴 메시지는 거의 순간적으로 온 세계에 전달될 수 있지만 읽는데 걸리는 시간 이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인류의 기억을 담는 매체의 역사를 보더라도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지 않는 한 새 매체가 기존의 매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다. 전자매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인쇄매체에 뒤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인쇄매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면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

일부에서는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된 모든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화 될 것이며, 그것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저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엄청난 비용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자기록은 깨지기 쉬우며 변질되고 손상을 입기가 쉽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서 조직되지도 여과되지도 않은 채 떠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치 있으며, 어느 것이 후대를 위해 보존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⁸⁾ 따라서 책의 무용론을 주장함은 성급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정보화시대에 책읽기는 무슨 의미를 지닐까? 20세기말부터 인류사회는 정보화라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정보화란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능력이 향상되어 인류의 모든 활동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통신기술과 정보를 계산, 분석하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진 정보화는 오늘날 이 두 기술이 정보통신기술로 융합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는 능력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즉 창의력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 존재하지도 않은 유형, 무형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은 한결같이 책읽기에 있다고 답한다. 컴퓨터의 황제라고 일컫는 빌 게이츠에게는 할머니의 지적 명민함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할머니는 이따금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는데, 그 결과 게이츠는 광범위한 분야에 흥미를 가진 독서광이 되었다. 그는 특히 아동문학의 고전에 속하는 「샤롯데 웹브」, 「두리틀 박사」와 「돼지 프레디」, 「툼 스위트」, 「타잔」 시리즈 같은 자연과학적인 소설들을 좋아했다.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 때 독서 캠프를 열곤 했는데, 게이츠의 회상에 따르면, 그는 아동부에서 언제나 일등을 차지했고, 때로는 전체에서 일등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학교에서 A점수를 받을 때마다 25센트 동전을 하나씩 주었고, 모두 A점수를 맞으면 ‘금단의 과실’인 주말 텔레비전 시청을 허락했다고 한다.⁹⁾ 그리하여 그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도서관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책이 가득한 마을 도서

8) 마이클 고먼, “꿈, 광기, 그리고 현실, 윌 책, pp.256-261 참조.

9) Stephen Manes · Paul Andrews, *How Microsoft's Mogul Reinvented an Industry and Made Himself the Richest Man in America*, 이진광 · 이지선 옮김, 「빌 게이츠 홈치기」(서울 : 푸른산, 1994), pp.48-49.

관이 빌 게이츠의 어머니였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독서다. 어릴 적부터 독서광이었던 그는 지금도 해마다 책을 읽기 위해 한 달씩 휴가를 내 혼자 틀어박힌다고 한다. 빌 게이츠가 성공한 비결 가운데 하나인 책읽기가 빌 게이츠로 하여금 세계와 미래를 읽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다.¹⁰⁾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회·경영학자이자 미래학자' 또는 '현대 경영학의 대부'로 일컬어지고 있는 피터 드러커(1909-)는 "정보화가 될수록 읽기 교육을 배가하여야 한다. 읽기 능력만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책읽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1년 혹은 2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해 냈으며, 90살이 되어 가던 때에도 여전히 '월스트리트 저널'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자신의 글을 기고했다. 지금도 그는 수많은 책과 잡지를 탐독하며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편지를 쓸 때에는 타자기를 손수 두드리는 등 그의 일상적인 삶에는 정보혁명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¹¹⁾ 그의 사상은 현실에 대한 충실한 관찰에 기초하지만 그 내용은 한 시대를 앞지르는 선구적인 것이었다. 1969년에 출간된 「불연속성의 시대(The Age of Discontinuity)」는 당시의 인습적 사고를 수십 년이나 앞지르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의 예측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그는 누구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지만, 현재의 비밀을 푸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현재는 점술가의 유리구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현재의 상황이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하였다.¹²⁾ 이처럼 현재에 대한 관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은 기호를 보면서 기호 뒤에 숨은 의미를 생각하는, 즉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사고하는 책읽기에서 길러진다고 하겠다.

위에서 보듯이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고 있는 이들은 한결같이 어릴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지금도 많이 읽고 있다. 그들은 책읽기를 통해 현재를 혁신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은 디지털이 아닌 책(冊)이며, 전자매체의 위력이 드세어질수록 승부는 책읽기에서 결판이 난다고 할 수 있다.

나. 책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생활에 관습과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듯이 개인의 책읽기에도 여러 요인들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요인으로는 가족, 주변환경, 학교교육, 대중매체, 도서관, 국가 등 6가지를 들 수 있다.¹³⁾

첫째로 가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가족은 어린이가 접하는 첫번째 세계가 된다. 친밀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가족은 어린이의 교육과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원천이

10) 책쟁 사회' 추방하자, 「시사저널」, 제607호(2001.6.14.).

11) Robert Heller, *Business Masterminds Peter Drucker*, 김한영 옮김, 「피터 드러커」, 한 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세계의 거장들 1(서울 : 황금가지, 2001), pp.8-15.

12) 윗책, pp.101-119 참조.

13) Ralph C. Staiger, *Roads to Reading*, 오인환 옮김, 「독서의 생활화」(서울 : 구미무역(주), 1982), pp.23-31.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가족 중에 책을 많이 읽는 어른이 있거나, 또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가정을 자주 방문하는 어른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책읽는 습관이 생긴다는 것이다.¹⁴⁾ 미국 카터 대통령의 경우¹⁵⁾ “어머니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식탁에서도 늘 책을 읽었다.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그는 책읽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집안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책읽기가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단독활동이므로 어머니는 이를 배려했던 것이다. 책은 그에게 선생님이었고, 멋진 친구였으며, 신나는 탈출구였다.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들의 야망을 키워주고 스포츠에서건 정치에서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역설하는 동안 어머니 로즈는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돌보았다.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책이었다. 아이들이 혼자서 책읽는 법을 배워 감에 따라 어머니는 「툼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고대로마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을 사들였다. 호기심이 강하고 아파서 자주 누워있어야 했던 어린 케네디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었다고 한다.¹⁶⁾ “교양은 조야한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준다. 교양은 세속적인 이점들이 아니라 영혼을 진정으로 고상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었던 존슨대통령의 어머니처럼 대통령의 어머니들은 책읽기를 통해 자녀들이 문화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였다.¹⁷⁾

둘째로 주변 환경을 들 수 있다. 지적 분위기가 활발한 곳, 다시 말하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지적 안목을 넓히고 책읽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커서 책을 열심히 많이 읽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독서가 작가의 사상과 독자의 두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활동이다. 그렇지만 책에서 얻은 지식이나 즐거움을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더욱 책을 읽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아울러 대화나 토론 등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더욱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셋째로 학교교육을 들 수 있다. 교육은 계속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이 책을 읽을 확률은 교육정도와 함수관계를 갖는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책을 읽을 줄은 알지만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학교 다닐 때에 이미 책을 기피하도록 조건지워지는 경우도 있다. 친구에게서 영향을 받는다면 도서관에 적절한 책이 없다면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교사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책을 멀리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응책은 학교가 책임지고 수립해야 한다.

넷째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여론 형성에 강력하게 영

14) 윗책, p.63.

15) Bonnie Angelo, *First Mothers*, 이미선 옮김,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서울 : 나무와 숲, 2001), pp.448-449 참조.

16) 윗책, p.240.

17) 윗책, p.693 참조.

향을 미치며, 사회구성원의 사회태도를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변용시키는 위력이 있다.¹⁸⁾ 그리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도서 등 대중매체는 책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TV나 광고에 어떤 책이 한 번 소개되고 나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실은 TV나 광고와 같은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책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을 보여주는 보기이다.¹⁹⁾

다섯째 도서관을 들 수 있다.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은 책읽기를 자극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린이가 좋아하는 책이 많이 있고, 친절한 사서가 있으며, 도서관의 분위기가 좋을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storytime)'이 좋은 보기이다. 이는 생후 18개월 이상의 유아들(toddler storytime : 생후 18개월-3년 6개월)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전(preschool storytime : 생후 3년 6개월-6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서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²⁰⁾ 부시 현 대통령의 부인 로라 여사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웃의 미드랜드 공공도서관(Midland Public Library)에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시어머니인 바바라 부시 여사의 뒤를 이어 주지사 부인 시절부터 문맹을 퇴치하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 책 읽어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²¹⁾

여섯째로 국가의 영향을 들 수 있다. 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하고 장서를 구입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나 평생교육에 필수적인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 등 책읽기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결정이 국민의 책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2000년 8월 국회는 국제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는 2000년을 '어린이 독서의 해'로 삼자고 결의하고, '책을 만나며 어린이들은 말을 배우고, 감성을 닦으며 표현력을 높이고, 창조력을 풍부히 하면서 인생을 더 깊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정부는 독서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고 거국적으로 어린이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집중적·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²²⁾ 정보화 시대에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책읽기의 무한한 가치를 인정하고, 책읽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영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는 미국의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로라 부시 미국도서관 재단(The Laura Bush

18) 朴有鳳, 「매스 커뮤니케이션」(서울 : 一潮閣, 1984), 서문.

19) '위대한 개츠비'가 서울과 부산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는데, 그 이유가 얼마 전 TV의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문장을 들려주고 작품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 갑작스럽게 이 책이 학생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이다. "책갈피 / 책읽기도 유행?", 「한국일보」, 2001.8.28.

20) 필자가 1998년 1년 동안 경험했던 피츠버그 공공도서관(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Main Library) 어린이자료실의 프로그램이다.

상세한 것은 {<http://www.carnegielibrary.org/clp/subjprog.html>}을 참조하기 바람.

21) "First Lady, First Librarian", *American Libraries*(February, 2001), pp.50-51.

22) "TV 책을 말하다 : 제2편 책읽기의 유희", KBS 창사28주년 특집, 2001.3.4. 구성초안.

Foundation for America's Libraries)'을 설립하여 '백악관 학교도서관회의(a White House Conference on School Libraries)²³⁾를 주재하는 등 책읽기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 책읽기와 TV시청

책읽기와 TV시청은 학력의 신장이나 인격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책읽기는 사고의 지평을 확장해 준다. 읽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성숙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첫째 감각 자료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하며, 둘째로 자료와 자료 사이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한다. 감각 자료가 빈약한 사람이나 텔레비전만 보고 자란 어린이들은 사고의 능력을 기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감각자료가 쉴 새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것은 그저 보는 것과 달리 세계와 부딪힐 때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읽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문자를 눈으로 보면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자를 넘어서 글자를 있게 만든 생각과 느낌과 꿈을 사유하는 사람만이 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책읽기는 우리 시대의 불균형을 해소해 준다. 우리 시대는 감각이 넘쳐서 생각을 잡아먹는 시대이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감각 자료의 홍수 속에서 해독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실종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읽기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간주하게 된다. 시대의 정조를 읽는 사람만이 내일 올 것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읽기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눈에 보이는 것의 이면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만이 다가오는 불행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다.²⁴⁾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인쇄매체는 위기에 놓여 있다. 활자는 직선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하는 반면 텔레비전은 운동적이고 교직적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지각하도록 만들었다. 활자의 정적인 특성과는 달리 동적인 텔레비전시대에 성장한 어린이들은 책 읽는 것이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문자문명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독서능력이 약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텔레비전이 주변에 있는 한 어린이의 독서량은 줄어든다. 책 읽는 것은 복잡한 지적인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적은 노력으로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23) 로라 부시 여사는 이 회의의 개회연설에서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들이 일단 도서관 이용법을 배우게 되면, 놀라게도 언제나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된다.(Libraries allow children to ask questions about the world and find the answers. And the wonderful thing is that once a child learns to use a library, the doors to learning are always open.)”고 하였다. “Opening Remarks for Mrs. Bush White House Conference on School Libraries June 4, 2002, ‘로라 부시 미국도서관 재단’ 홈페이지 {http://www.laurabushfoundation.org/Open_Remarks.html}. [2002.7.30.]

24) 장경철, 「책읽기의 즐거운 혁명」(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1999), pp.136-137.

TV 시청은 독서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독해력과 작문력의 저하를 동반한다. TV 시대의 어린이들이 선택하는 책의 종류는 문학책이나 철학책 등 양질의 도서가 아니라 단편적이고 가벼운 책을 선호한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특성이 모자이크식의 영상으로 구성되며 메시지가 기승전결의 흐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매순간의 클라이맥스로 점철되어 어린이들의 사고력 신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TV시청이 독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더 많은 연구가 동의하고 있다.²⁵⁾

TV 시청은 뇌의 발달에도 유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간의 뇌는 기능분화에 따라 좌·우반구의 수행기능이 다르다. 언어와 논리적 사고 기능은 좌반구에서 수행하고, 공간과 지각 및 정의적 기능은 주로 우반구에서 수행한다. 대체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에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두 뇌반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성장하면서 환경과 접촉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분업이 이루어져 두 개의 반구 사이에는 상이한 기능상의 특수화가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간의 뇌의 발달은 유아기 때 특히 5-6세 이전에 현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수많은 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성장한 어린이들은 뇌의 발달에 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유아기 때부터 TV를 많이 시청하게 되면 언어와 논리를 관장하는 좌반구보다 우반구의 발달이 강조될 수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일단 뇌의 발달에 지장을 입고 성장하게 되면 성장한 후에 이를 교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²⁶⁾

그리고 TV시청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키워주지 못해 어린이들의 일생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어린이들에게 폭력에 쉽게 물들게 만들며, 또한 조그만 미립자 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텔레비전의 영상이 사람으로 하여금 조용히 관조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매일의 텔레비전 시청이 어린이들을 활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끌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만들기 쉬워 텔레비전 중독현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즉 어린이의 장시간 텔레비전 시청은 단순한 과다시청에 머무르지 않고 TV중독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시청행위를 TV중독현상이라 말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텔레비전과 관련된 이러한 중독현상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비교적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부디는 '텔레비전의 습관적 시청은 인간의 신체구조 및 건강과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학습과 지각에까지 영향을 주며, 공격성향을 촉진하고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TV에 중독이 되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되어 환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세계로

25) 남명자, 「어린이와 텔레비전 환경」(서울 : 나남출판, 1995), pp.185-186.

26) 윗책, pp.200-201 참조.

몰입한다. 또 TV가 시청자의 감각적 자극을 환기함에 따라서 시청자들은 더욱 강한 자극을 받게 된다. 현실도피로서 TV를 시청하는 경우를 보면, TV를 시청하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벌받을 염려 없이 주인공의 입장에 자신을 투사하여 공격적이고 성적 충동이 있으며 불복종하는 성격과 동일시하고, 극중의 공격적인 영웅과 함께 살인하고 성적으로 매력 있는 극중인물과 함께 사랑하는 등의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TV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부족하므로 어린이들이 TV 속의 환상으로 도피하는 것은 아주 용이한 일이라 하겠다.²⁷⁾

라. 책읽기와 인터넷

어린이들이 혼자서 책을 읽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독서를 통해 현실과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이동하므로 경험하게 되는 세계가 넓어지고 여러 가지 삶을 체험하게 된다. 둘째, 책을 읽는 것은 스스로 사실들을 발견하고, 즐기면서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혼자서 책을 읽으면 독립심이 강해진다. 셋째, 책을 읽으면서 이제껏 한번도 보지 못한 장면들을 마음 속에 떠올리게 되므로 책읽기는 상상력을 높여준다. 상상력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을 머리 속에 떠올리는 힘을 말한다. 넷째, 혼자서 책을 읽는 것이 익숙해지면 평생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습관이 생긴다.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책읽기에 익숙해지고 기쁨도 커진다. 기쁨이 더해질수록 좀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진다. 혼자서 책을 읽는 행위는 내용을 쉽게 빨리 이해하고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독서능력을 키워준다. 다섯째, 책읽기는 어휘력을 증진시킨다. 어린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말의 뜻을 새로 발견하기도 하며, 여러 낱말들이 새로운 낱말들을 둘러싸고 있을 경우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한다. 여섯째, 책읽기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길잡이가 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관습과 문화를 갖고 있더라도 책을 통해 공감함으로써 타인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책읽는 습관은 씨앗과 같아서 일찍 뿌리면 뿌릴수록 깊게 뿌리내리는 법이다.²⁸⁾

반면에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시대의 도구들은 텔레비전보다 더 위험하여 중독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 통신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가리켜 인터넷 중독 증후군(IAD, Internet Addiction Syndrome)²⁹⁾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피츠버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킴벌리

27) 윗책, pp.75-101 참조.

28) Bernice E. Cullinan, *Read to Me : Raising Kids Who Love to Read*, 최진 옮김,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자녀를 성공시킨다」(서울 : (주)대교출판, 1997), pp.52-58.

29) 인터넷 중독 증후군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사용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 ② 통신을 한 시간을 배우자에게 거짓으로 말한다. ③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통신에 접속한다. ④ 갈수록 통신을 더 오래 해야 만족한다. ⑤ 인터넷상에서 경험한 것을 꿈이나 환상으로 다시 경험한다. ⑥ 통신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를 자꾸 되풀이하고 또 실패한다. Steve Morris, Neil Svensen and John Meed, *The Knowledge*

영은 인터넷 중독으로 생활이 황폐해지고 있으며, 이 중독성이 어느 모로 보나 알코올이나 마약만큼 강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심하며, 특히 인터넷에 접속하기 전에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³⁰⁾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현실 세계를 외면한 채 사이버 공간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것을 사이버 중독이라고도 하는데, 사이버 중독(Cyber Addiction)이란 “정보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중독”의 의미는 지나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하여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이 발현됨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즉, 사이버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의존성과, 웹에 매달려 컴퓨터를 끄고 빠져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 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은 떨어지는 내성현상, 그리고 인터넷을 떠나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인터넷상에 무슨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며, 어떤 전자우편이 와 있을지 몹시 궁금해하는 금단증상의 특성을 지녔다.

사이버 중독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증상에 의해 단정적으로 정의될 수는 없으며, 증상들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이며 만성화되어 신체, 심리, 사회 및 직업 활동상의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중독에 대한 분류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통신중독, 게임중독 및 음란물중독으로 나눌 수 있다.

① 통신중독 : 통신중독은 정보이용자가 대화방, 머드게임, 동호회 등의 순서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즐겨 전자우편이나 정보검색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과도한 통신중독으로 인한 증상으로는 자기통제력의 상실, 통신을 통한 행복감의 추구,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의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의 감소, 대인관계 장애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② 게임중독 :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유익한 면이 있지만 지나친 게임은 중독증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폭력게임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파괴본능을 만족시킨다. 가상공간에서는 자신을 강력한 파워맨으로 인식하며 성취욕구를 느낄 수 있다.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과 달리, 네트워크 게임의 경우 매번 다른 상대에 의한 새로운 게임 환경 조성으로 참여자로 하여금 게임에 빠지게 한다. 현실공간은 재미가 없고 지루한 반면 가상공간에서의 게임은 현실을 잊고 강력하게 표현되는 또 다른 자신의 캐릭터를 통하여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밤새워 게임을 하고 낮에 졸거나,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며 특히, 게임중독증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체력저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문제점으로는 게임의 폭력성에 노출되고,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에

Manager, 미래와 사회 옮김, 『정보시대와 지식관리』(서울 : 도서출판 시유시, 2000), pp.72-73.

30) 윗책, p.73.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되어 현실에서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로 리셋증후군(Reset syndrome)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얼른 리셋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 맘에 안 들면 지금까지 벌여 놓은 일이나 인간관계 등을 쉽게 다시 시작하려는 현상을 ‘리셋(reset)증후군’이라고 한다. ‘리셋증후군’은 아이들 사이에 참을성 없는 행동과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위주의 행동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심지어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까지 연장되고 있다.

③ 음란물 중독 : 특히, 청소년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중독으로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음란물과 달리 컴퓨터음란물은 여과과정이 없으며,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변태적인 내용도 고화질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컴퓨터 음란물 중독 현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음란물에 접근하고, 밤새도록 보고 낮에 졸거나, 부모와 대립하기도 한다. 또한 죄의식으로 결벽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의 경우, 음란물을 보고 나서의 연상작용으로 공부에 지장을 받으며, 성충동의 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내용의 설정이 대다수인 음란물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며 모방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³¹⁾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중독의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기에 사이버중독에 걸리면 성인이 되어서도 알코올중독이나 마약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이처럼 책읽기를 뒤로하고 TV 시청이나 인터넷에만 몰두하면 창의력 개발은 고사하고 학력의 저하와 인격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책을 읽는 사람은 TV와 인터넷을 ‘정보적’으로 사용하지마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TV와 인터넷을 ‘비정보적’으로 사용하여 TV 중독이나 인터넷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책읽기를 기본으로 하고 더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획득을 위해 TV도 시청하고, 인터넷도 하는 양자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Ⅲ. ‘책읽는 학교’ 만들기의 실천 방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인터넷하는 학교’ 만들기와 ‘책읽는 학교’ 만들기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 이는 재론의 여지없이 ‘책읽는 학교’ 만들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교실마다 프로젝션TV를 들고 인

31) 사이버 중독이란?, 사이버중독정보센터(Cyber Addiction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203.240.20.229/pois/front/addiction/addiction01.jsp>} [2001.11.7.]

터넷을 연결하여 전자매체에 익숙하게 하기보다는 우선 사서교사를 확보하여 제대로 된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범학교적인 차원에서 책읽기를 장려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책과 책읽기에 친숙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本末이 있고, 終始가 있는 법이므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한다.³²⁾

1. 사서교사의 필요성

책읽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을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은 독서교육을 통한 인격도야는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교육의 심장부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의 관행에서 벗어나 무한한 지식정보의 세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즐거운 배움터요 인생의 실험실임이다.³³⁾ 이러한 학교도서관은 건물과 시설, 자료, 사람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람, 즉 사서교사이다.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서교사가 없다면, 훌륭한 시설에 좋은 자료를 구비해 놓았다 하더라도 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사서교사는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그 자료가 교육과 학습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즉 자료가 살아서 움직이도록 자료와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양자를 연결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학교의 예산,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국가의 법률이나 재정 체제에 따라서 효과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 운영해야 함은 물론 네트워크 환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 및 학생들에게 정보 활용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³⁴⁾

우리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미 제5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는 많은 교육 자료 중의 하나 일뿐이라고 하지만 6차 교육과정이 끝나고 제7차 교육과정³⁵⁾이 시행되는 현재까지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여전하다. 그래서 교육 개혁의 하

32) 『大學』經1章,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

33)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설립취지,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urido.net/>} [2002.7.15.]

34) Glenys Willars,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 1998.8.

35)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2000년 초등학교 1·2학년 ; 2001년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 2002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03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제7차 교육과정 안내,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we.go.kr/>} [2001.11.9.]

나로 교과서를 재편성하거나 다양한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교과서에 담긴 지식은 너무나 단순하고 편협하며 딱딱하며, 급변하는 새로운 정보를 미처 담아내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 단원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담은 다양한 책을 찾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교사들이 교과서 단위 목표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책을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린교육 방법이 겨우 단편적인 정보를 담은 학습지 위주로 되고 있으며, 질 좋은 책과 자료를 활용하는 독서 교육은 이루어지지 하지 못하고 있다.³⁶⁾

독서 교육은 국어 교과뿐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수학과 관련된 책, 자연과 관련한 책, 사회와 역사 학습과 관련한 책을 찾아 즐겁게 읽힐 때 어린이들은 새로운 지식, 교과서를 뛰어넘는 폭넓은 지식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런데 각 교과와 관련한 독서 지도는 물론 국어 교과와 관련한 독서 지도도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책읽기 지도는 독서지도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자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겸비한 전담교사, 즉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 자질을 갖춘 사서교사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차이를 다음의 한 사서교사가 부임했을 때의 느낌과 부임 후의 활동에 대한 기술로써 비교할 수 있다.

처음 내가 발령을 받고 부임해 온 그해 모학교의 학교도서관은 거대한 책 창고와 같았다. 60평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딱 닫힌 도서관의 문은 학생들과의 접근을 막고 있는 철벽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낡고 오래된 서가들이 틀어질 대로 틀어져 보기도 안스러웠고, 학교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낡은 장서들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그 제목을 알아보기도 어려웠다. 몇 안되는 신간 도서는 기증용 문고본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오래된 책들 사이에 섞여 있어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이 학교는 독서 시범학교와 중심학교를 계속 해오고 있던 터라 그나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의 열악한 실태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을 담당했던 국어 선생님은 교과수업과 교재연구, 그 밖에 행정 업무만으로도 절대 시간이 부족하므로 도서관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부임한 3월 이후 나는 바쁘게 움직였다. 더 이상 이용되지 못하는 오래된 장서들과 1980년대 이후의 책들을 분리하여 서가를 배치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책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던 서가를 모두 정면으로 돌렸다. 먼지를 털고 장서점검을 하고, 도서목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데 꼬박 두 달 가량이 소요되었다.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국어과 교사가 업무 분장을 맡아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도서관 특히 학교도서관은 정보소양 및 자

36) 이주영, '교육개혁'은 학교문고에 꽂힌 책에서부터, 『출판저널』, 제235호(1998.5.5.), p.6.

기주도적 학습력 배양 교육의 초기 단계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점점 변해갔다. 도서관을 찾지 않던 아이들은 수시로 들락거리며 책을 찾았다. 각종 교과 관련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고, 분야별·수준별 권장도서를 만들어 교사 및 학생들에게 권했다. 특히 신간 도서 정보를 수집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일은 호응이 매우 높았다. 선생님들은 사서교사의 희귀성과 그 역할을 얘기하며, 달라진 도서관과 학생들의 변화에 놀라워했다.³⁷⁾

이를 통해 한 사서교사가 부임함으로써 거대한 책 창고가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남을 볼 수 있다. 꼭 닫혀 있던 문이 열리고, 서가에서 잠을 자던 책은 긴 잠에서 깨어나 열심히 살아 움직인다. 그리하여 책과 책읽기는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되고, 이는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죽어 있던 도서관이 살아난 결정적인 계기는 사서교사의 부임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미발령 포함 전국 154명으로 전체학교의 1.5% 정도만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다.³⁸⁾ 멀지 않은 장래에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 양호교사처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서교사가 모든 학교도서관에 배치되어야 한다.

2. 학교도서관의 확충

도서관은 열람실을 갖춘 단순한 서고가 아니다. 그곳은 지식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서적의 우주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도서관을 '영혼의 치유소'라고 했다. 노동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또한 노동이 안겨주는 보상과 충족감까지 베푸는 세계가 천국이라면, 책과 책이 자리한 공간을 천국이라고 했다. 도서관은 극장이나 미술관처럼 범속한 일상사나 현실세계로부터도 차단되고 구별된, 그러므로 그만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자기 완결적인 공간이다. 도서관이란 좋은 책으로 가득 차 벽찬 shelves와 기대감으로 찾아드는 문자의 우주이다. "거기의 모든 것은 반듯하고 아름다우며, 영화와 열락(悅樂)과 고요함이 존재한다"라는 어느 시인의 시 구절처럼 그러한 곳이 도서관이다. 그리하여 17·18세기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의 영국인들은 도서관의 건축을 통해 천국을 실현하고자 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은 건축예술 최대의 걸작으로서 "도서관으로서 이 이상 아름답고 마음 편한 곳이 없다"는 평을 받았으며,

37) 부산 K 사서교사의 증언, 2001.10.28.

38) 이희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실태 및 외국의 정책방향,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대책 공청회> 발표문(서울 :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 대강당, 2002.7.26.), p.30. ;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urido.net/>}

어느 시인은 “천국은 도서관 모양이리라”고 읊었다.³⁹⁾

국가나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긍정적인 힘이며,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의 경제적·사회적·교육적·정서적·문화적 그리고 영적 필요와 그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부모 없는 청소년들, 장애청소년들, 소외된 청소년들의 실태에 유의하며, 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기와 수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⁴⁰⁾ 학교에는 훌륭한 학교도서관을, 사회에는 멋진 공공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곳에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이 최상의 기쁨과 열락을 맛볼 수 있도록 반듯하고 아름다운 책들과 안락한 시설을 갖추어서 범속한 일상사로부터 단절된 자유로운 공간을 꾸미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혼의 치유사로서 도서관을 운영할 사서와 사서교사가 있어야 하고, 새로 접할 새로운 세계를 가슴 벅찬 기대감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 좋은 책과 다양한 자료들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도서관 현실은 어떠한가? 어른들은 책 읽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어른들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가?

다음은 어느 초등학교 교사의 관찰이다.

4월 중순에 우리나라에서 열린교육을 잘 하기로 소문난 사립학교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열린교육을 한다고 잔뜩 벌여놓은 교실과 복도에 꽂아놓은 책을 보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 학년 교과지도에 맞는 책과 인성지도에 중요한 동화책은 적었고, 오히려 인성지도에 해가 될 책이 섞여 있었으며, 요즘 새로 나온 우수한 책들은 몇 권밖에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에 지방 초등교사들 초청으로 1박 2일 동안 독서 교육 강연을 갔었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했던 한 교사의 학교를 견학했다. 교단 선진화로 컴퓨터, 멀티비전, 스캐너, 복사기, 캠코더, 오디오 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런데 학교도서관에는 맞춤법 개정 전에 출판된 책들로 채워져 있었다. 벌써 버려야 하는 책들이다. 교육의 기본이 되는 책은 쓰레기인데 기자재만 바꾸면 교단이 선진화되는가?

이처럼 부실한 학급 문고와 학교도서관실은 비단 이 두 학교만이 아니다. 대부분 학교의 교실과 도서관실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다.⁴¹⁾

다음 기사는 인천시내 중·고등학교 도서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39) 이광주,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 권」(서울 : 한길아트, 2001), pp.157-182.

40) 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 1998.8. ; 천정웅·김영지·김경호,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서울 :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pp.85-92.

41) 이주영, 앞글, p.6.

2001년 11월 3일 인천시내 25개 중·고등학교 도서관 학생들이 모여 '인천 도서관 연합'을 결성하였다. 학생들은 이날 "첫째, 도서관 공간을 넓혀주세요. 둘째, 우리에게 헌책 아닌 새책을 주세요. 셋째, 음반·영상자료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넷째, 우리가 원하는 건 언제나 열려있는 도서관입니다."라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학교도서관에 세로줄로 쓰여졌거나 맞춤법 개정 이전에 출판된 헌책이 많지만, 연간 폐기할 수 있는 책이 3%로 한정되어 있어 가뜩이나 좁은 서가를 압박한다고 학생들은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점심 시간과 방과후에 잠시 대출을 해줄 뿐 늘 자물쇠로 잠겨있으며, 그나마도 자습실로 개조되어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거의 없고, 학교 경상비의 5%로 되어 있는 도서관구입비를 규정대로 책정하고 있는 학교가 전무하다는 문제점들도 거론되었다.⁴²⁾

위의 교사나 학생들의 발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싶은데, 도서관은 늘 닫혀 있고 볼 책도 없는 것이 오늘의 학교도서관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도서관조차 없는 초·중등학교가 전체의 1/5이나 된다.⁴³⁾

읽을 책은 없는데, 거액의 첨단 전자장비들만 들여놓고 교단을 선진화한다고 한다.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후에야 책을 읽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나무랄 수 있다. 도서관은 늘 닫혀 있고, 읽을 책도 없는데, 무엇을 읽으란 말인가?

다음은 어른들이 책 읽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변화된 학교도서관의 모습이다.

안양 신성중고등학교 도서관⁴⁴⁾은 아이들한테 '행복한' 공간이다. 빼곡이 꽂혀 있는 많은 책들이 아이들을 항상 기다린다. 대개 새 책들이다. 도서관 시설도 좋다. 4층 건물 전체가 도서관이다. 1·3층은 열람실이고, 2층은 정보의 '보고'인 정보자료센터로

42) 헌책 쌓인 학교 도서관, 「朝鮮日報」, 2001.11.9.

43) 10,172개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는 8,181개로 80.4%의 설치율을 보여 약 1/5이 학교도서관이 없는 학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 전국 학교급별 학교도서관 설치율

구분	학교수	학교도서관 수	설치율(%)
초	5,382	3,820	70.9
중	2,801	2,534	90.5
고	1,989	1,827	91.9

이희수, 앞글, pp.26-27.

44) 안양 신성중고등학교 동천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http://210.104.230.194/library/start_frame.htm}을 참조하기 바람.

꾸며져 있다. 공공도서관 부럽지 않은 시설이다.

정보센터에는 3만 5천 권의 단행본, 75종의 잡지 등 모두 4만 여권이 서고를 채우고 있다. 또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자료도 2,500종에 이른다. 오디오·비디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모든 자료가 전산화돼 있어 학교 밖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이런 학교도서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1996년 학교 건물을 새로 지어 옮기면서 도서관 준비팀이 발족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정철 교장이 준비팀을 맡아 사서교사 2명과 함께 도서관 만들기를 지휘했다. 정 교장은 “학교도서관은 입시와 과외에 찌든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휴식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먼저 낡은 책, 세로쓰기 책 등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수천 권의 책을 과감히 버렸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아이들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모델을 찾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 등 공공도서관을 둘러보러 발품을 팔았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했다.

1997년 4월 도서관이 문을 연 뒤에도 1년 6개월 동안 도서관장을 겸임하는 등 정 교장의 도서관 꾸미기 열의는 이어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고르기 위해 사서교사들과 교보문고에 가서 백만권이나 되는 책 가운데 2만권을 추려내는 일이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에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일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도서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도서관장과 3명의 사서교사가 도서관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 전국에 정식 사서교사가 120명도 안 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파격’ 그 자체다. 해마다 도서관구입비로 5천만원을 투자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그 돈으로 해마다 5천-6천 권의 책을 산다.

신성 중·고등학교 도서관은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된다. 아이들이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뜻을 반영해 대개 구입한다. 교사들이 필요한 책도 그때그때 구입해 놓는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에는 시사·교양 관련 책에서 만화·게임잡지까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을 즐겨 찾는다. 중·고등학교 3천명 가운데 하루에 250여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하루 대출되는 책도 100권이 넘는다.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에도 문을 연다.⁴⁵⁾

이처럼 도서관을 좋게 꾸며서 좋은 책을 충분히 갖추고 이를 운영할 사서교사가 있으면 학생들은 책을 좋아하고 또 많이 읽게 된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 부는 대로 풀이 쏠리듯이 어른들이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

45) 즐거운 학교/재미있는 수업 : 제1부(9) 학교도서관 모범사례, 「한겨레」, 2001.8.13.

라서 학창 시절에 책과 책읽기에 가까이 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 확충은 그 영향과 효과가 다른 무엇보다도 지대하다.

우리나라 초·중등 각급학교별 학교도서관당 예산은 초등학교가 4백 34만 6천원, 중학교가 4백 3만 3천원, 고등학교가 5백 55만 7천원 정도이며, 전체 평균은 4백 49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⁴⁶⁾ 신성중고등학교 도서구입비의 1/10 수준인 오백만원도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불러들일 수 있겠는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 비용을 제외하면 단행본을 과연 몇 권이나 구입할 수 있겠는가?

3. 책읽기 장려 운동 전개

아이들에게 무조건 책을 읽으라고 한다고 읽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질이 좋고 재미있는 책을 두루 갖춘, 아주 안락한 분위기의 도서관을 꾸며놓고 언제나 자유로이 원하는 책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는 책 읽어주기 운동, 아침 10분 독서 운동, 책의 바다에 빠뜨리기 운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책 읽어주기 운동⁴⁷⁾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책은 장난감과 전혀 다르다. 단순히 만져만 보거나 그림만 보아서 책의 의미가 없다. 어느 책이나 책은 그 내용이 이해되고 또 머리와 가슴속에 무언가 느껴져야 한다. 이것은 아직도 지적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그 책의 내용을 음미해보기도 전에 흥미부터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은 책을 장난감 만지듯이 겉모양을 훑어보거나 자기에게 흥미 있는 부분만 읽고는 내버리고 있다. 말하자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을 읽는 셈이다.

그러므로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이나 도서관에 책을 갖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면 다음의 7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 둘째, 책을 읽어 가는 동안 아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크게 발동된다. 셋째, 아이들이 차츰 책과 가까이 하게 된다. 넷째, 언어 표현력과 사고력이 크게 늘어난다. 다섯째, 집중력이 생긴다. 여섯째, 아이들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성격이 좋아진다. 일곱째, 아이들에게 인생의 좋은 길잡이 구실을 한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이는 책을 읽어주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책

46) 이희수, 앞글, p.28.

47) 짐 트렐리즈, 이일남 옮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서울 : 오리진, 1995), pp.10-31 참조.

읽어주기를 학교 숙제나 시험 공부처럼 억지로 하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책을 읽어주면서 자꾸만 아이의 기억이나 두뇌를 테스트하려는 것도 좋지 않다. 또한 아이가 피곤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을 때에 억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강요하거나 즐거움이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면 아이들은 점점 책에서 멀리 달아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가 ‘책읽는 즐거움’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공부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은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사고력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상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겠지만, 중고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책을 추천해주거나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주는 것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낸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학생들은 1년 동안에 엄청난 호기심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나. 아침 10분 독서 운동

일본에서 오래 전부터 어린 세대로 갈수록 책을 읽지 않는 층이 늘어나면서 소수의 다(多)독자층과 다수의 부(不)독자층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1988년 치바현의 교사 오오츠카 에미코(大塚笑子)가 ‘아침 독서’를 시도했다. 아침독서란 오전 수업 시작 전 10분간 학생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이다. 강제적인 독후감도 없고 읽는 분량도 자유다. 때문에 책을 싫어하던 학생들도 차츰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이 성공적인 사례가 일본의 모든 초중고교에 급속히 알려지면서 2001년에는 이 운동을 실시하는 학교가 약 5천개로 늘었다. 이 때문에 책과 담을 쌓은 부독자 학생층의 증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운동은 독서를 증가 못지않은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학생들 상호간에 책을 공동소재로 하는 대화가 늘어 교실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집단 따돌림이나 지각생이 줄고, 학생들이 차분해졌으며, 어려운 한자를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등의 사례보고가 각 학교에서 이어졌다. 독서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외감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 것이다.⁴⁸⁾

이 운동은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48) “일본, 독서운동으로 ‘지식강국’ 기반 다진다”, 『출판저널』, 제296호(2001.2.20), p.40.

다. 책의 바다에 빠뜨리기(Book Flood) 운동

뉴질랜드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교실마다 400-500권의 양서를 제공하고 도서의 대량공급이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관심, 그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6개월 후 어린이들이 평균 책을 25% 이상 더 읽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들의 청취력이 괄목하게 향상되었다. “관심높은 책들을 교사들이 시간을 별도로 더 내어 어린이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곤 하였는데, 이것이 어린이들의 청취력 향상에 신속하고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 것 같다.”고 평가단은 해석을 내렸다. 1년 후에는 독서량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청취이해력이 가장 많이 높아졌다. 이러한 효과는 2년 후에도 계속되었다. 교사들도 이 운동이 어린이로 하여금 책에 관심이 끌리도록 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각 교실에 엄선된 도서 400-500권을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추천할 만한 정책으로서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독서습관을 형성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제1단계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대부분 이전보다 독서를 더 많이 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독서력과 이해력은 착실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도서와 작가에 대해 보다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종합평가를 하였다.⁴⁹⁾

학생들의 손이 닿는 곳에 읽을 책을 충분히 놓아둔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이다. 교실에 있는 책은 책읽기가 학교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과 아울러 학급문고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을 책의 바다에 빠지도록 한다면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며, 책읽는 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다. 게다가 선생님이 이따금 책을 읽어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라) 그 외

이외에도 책읽기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독학생시상제, 독서퀴즈대회, 독서토론회, 독후감쓰기대회 등을 들 수 있다.

책읽기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나아가 책을 읽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 단계에서는 책을 손에 넣었는가를 확인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 면에서 책을 많이 대출하도록 장려하는 다독학생시상제⁵⁰⁾는 의미있다. 다음으

49) Ralph C. Staiger, 앞책, pp.64-69.

50) 안양 신성중고등학교의 경우, 다독학생시상제는 도서관에 대출등록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소장도서 한해 1학기 말에 자료대출 통계에 따라 최우수상은 1,2,3학년 각 1명씩, 우수상은 1,2,3학년 각 2명씩 선발하여 상장과 상품을 수여한다.
{http://210.104.230.194/library/start_frame.htm} [2002.8.1.]

로 책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독서퀴즈대회⁵¹⁾를 들 수 있다. 독서퀴즈대회도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 다음 단계로 독서토론회와 독후감 쓰기 대회를 들 수 있는데, 글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독서토론회가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을 수 있다. 독서토론회는 책에 대한 이해나 감상을 다른 학생과 비교해 볼 수 있고, 시야를 확대하며 말하기 능력도 향상되는 계기가 되므로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아진다. 독후감 쓰기도 형식의 제한없이 다양한 글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유도되어야 한다. 일선학교에서 독후감 쓰기 대회가 많이 개최한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책과 책읽기에 친숙하지 않으면서 대회용의 일회적인 독후감 쓰기 행사는 실적을 올리는 데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책읽기를 권장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4. 책읽기 지도의 방법

가. 책읽는 습관의 형성

책을 읽을 줄 알면서도 실제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책읽기가 반드시 쉽고 즐거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책읽기를 시작했다고 어린이가 책읽는 습관이 드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활동이든 이를 즐기려면 어느 정도의 숙련이 필요하다. 습관은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을 두고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습관이 붙으려면 오랜 동안의 실행을 거쳐야만 가능해질 수 있다.

책을 읽는 것은 스키를 타는 것과 비슷하다. 스키는 노련한 사람이 잘 타면 우아하고 조화로운 스포츠이다. 하지만 초보자가 타면 잘 타지 못할 뿐더러 엉성하고 느리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스키를 배울 때 중요한 것은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거나 연속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 필요한 동작들을 하나씩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따로 떨어진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모든 동작을 잘 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적인 동작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씩 따로 배워야 한다. 그래야 그 동작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스키를 잘 타게 되는 것이다.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스키처럼 서로 다른 활동들을 하나의 활동으로 조화롭게 잘 융합시킬 수 있어야 훌륭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각각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연습하고 나면 그 하나하나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뿐

51) 안양 신성중고등학교의 경우, 독서퀴즈대회는 참가 희망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매월 다항목의 퀴즈문제를 출제한 후 학생들이 각자 도서관의 자료를 통해 정답을 적어 제출한다. 모든 문제의 정답을 적은 학생 중에서 매월 중고별 3명씩 추천하여 상품을 수여한다. 학기말에 꾸준히 참가하고 정답을 적어낸 학생을 퀴즈대왕으로 선발하여 상품을 수여한다. 일정을 보면, 퀴즈문제 출제 공고는 매월 5일, 퀴즈답안 제출 마감은 매월 20일, 정답자 발표와 상품수여는 매월 22일이다. {http://210.104.230.194/library/start_frame.htm} [2002.8.1.]

아니라 점차 전체를 한꺼번에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다. 읽는 법을 배우는 것도 스키나 테니스를 배우는 것처럼 복잡하다. 이는 형성되어야 할 습관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원칙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단계에 이르면 서로 맞물려 하나를 이루게 된다. 부분적인 행위들이 힘 안들이고 이루어지면 하나의 온전한 습관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익숙해지면 저절로 훨씬 더 잘 읽을 수 있다.⁵²⁾

글을 읽을 줄 알면서도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다. 예를 들면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원인이라든지, 눈이 나빠서라든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많다. 한 예를 들면, 노동자들 가운데 학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여가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계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많은 책을 읽고 있으며 보다 자주 책을 읽는 것으로 밝혀졌다.⁵³⁾

흔히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고 말하지만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면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보낸 시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읽기의 습관은 일본의 아침 독서운동처럼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지속될 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나. 목적에 따른 읽기 지도

책은 누구나 빨리, 많이 읽고 싶은 욕망을 지닌다.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서 속독강좌에 대한 광고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속독 강좌를 들은 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방면에 재능이 있는 일부 수강생뿐이다.

일반적으로 빨리 읽는 방법에는 대충읽기(skimming)와 훑어읽기(scanning)를 들 수 있다. 대충읽기는 글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대충 확인하는 정도의 독서를 말한다. 즉 매 단어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놓친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에 읽을 거리의 페이지를 대충 훑어보는 방법이다. 훑어읽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스키밍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찾거나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경우 불필요한 번호나 단어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충읽기나 훑어읽기 등의 빨리 읽기는 책을 읽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가볍게 즐기기 위한 경우에 적합하다.

읽은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목적으로 한 책읽기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단계는 대충읽기의 단계로서, 책의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충 읽는다. 보통 책을 읽으면서 해답을 얻어야 할 문제 또는 의문점들이 있는데 이들은 메모해도 좋다. 둘째 단계는 정독단계로서, 문제점 또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정독을 한다. 셋째 단계는 읽은 내용에 대해 자문자답해 보는 단계로서, 문제와 해

52) Mortimer J. Adler and Charles Van Doren, *How to Read a Book*, 독고 앤 윌김,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서울 : 도서출판 멘토, 2000), pp.64-66.

53) Ralph C. Staiger, 앞책, pp.20-21.

답을 참고삼아 내용에 자문해 본다. 넷째 단계는 기억을 해 보는 단계로서, 시험보기 직 전까지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문제와 해답을 반복해 기억해 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운 것 중 상당수는 곧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⁵⁴⁾

유능한 독서가가 되려면 책의 종류나 읽는 목적에 따라 책을 읽는 속도를 신축성 있게 조절해가며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률서류나 수학기식은 정독을 해야 하지만 가벼운 소설은 빨리 읽고, 신문은 대충 읽고, 전화번호부는 훑어 읽기가 좋겠다.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먼저 훑어보기만 해도 되는 책인지 찬찬히 잘 읽어야 할 책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분석하며 읽기' 지도⁵⁵⁾

분석하며 읽기는 철저하게 읽기, 완벽하게 읽기, 잘 읽기, 다시 말해 시간 제한 없이 가장 완벽하게 잘 읽는 것이다. 분석하며 읽을 때는 읽는 동안 체계적인 질문들을 해야 한다. 책을 읽는 목적이 단순히 정보를 얻거나 즐기기 위한 것이라면 결코 분석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분석하며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해하기' 위하여 읽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① 전반적으로 무엇에 관한 글인가? ② 무엇을, 어떻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 ③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 글은 맞는 이야기인가? ④ 의의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 가운데 앞의 세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I. 분석하며 읽기 제1단계: 무엇에 관한 책인지 알아낸다

1. 책을 종류와 주제에 따라 분류한다.
2. 책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최대한 간결하게 이야기한다.
3. 주요 부분을 순서와 연관성에 따라 열거하고 전체적인 윤곽을 그린다.
4. 저자가 풀어나가려는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한다.

II. 분석하며 읽기 제2단계: 내용을 해석한다

5. 중요한 키워드를 저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6. 가장 중요한 문장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는 주요 명제를 파악한다.
7. 저자의 논증을 문장과의 연관 속에서 구성하거나 찾아낸다.
8. 저자가 풀이한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를 구분하고, 풀지 못한 문제를 저자도 알고 있는지 파악한다.

III. 분석하며 읽기 제3단계: 지식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비평한다

A. 지성인으로서의 에티켓

54) Ralph C. Staiger, 앞책, pp.16-18.

55) Mortimer J. Adler and Charles Van Doren, 앞책, pp.13-220 참조.

9. 책을 완전히 파악하고 해석하기 전까지 비평하지 않는다.
(의견이 같거나 다르다고 표명하거나 판단을 보류하기 전에 확실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10. 반대한다고 트집을 잡거나 따지지 않는다.
 11. 어떤 비평을 하든 지식의 차원에서 하는 비평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그 비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 B. 비평할 내용의 기준
12. 저자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제시한다.
 13. 저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
 14. 저자가 논리적이기 못한 부분을 제시한다.
 15. 저자가 분석한 내용이나 설명이 불완전한 부분을 제시한다.

마지막 질문인 '④ 의의는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라면 그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 저자는 왜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정보가 나에게도 중요한가? 그리고 단순한 정보 외에 깨달음을 준다면 뒤따라오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위의 15가지 원칙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을 읽는 법이다. 문학작품을 읽는 법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을 읽는 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상상력의 산물인 문학작품은 배움을 주기보다 즐거움을 준다. 배우기보다 즐기는 것이 쉽다. 문학작품과 지식을 전달하려는 책의 기본적인 차이는 독자가 경험한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을 전달' 하려는 것과 책을 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전달'하는 것으로 목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책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책읽는 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IV. 결 론

현대는 지식과 정보가 재화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사회로서 국가나 개인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지녀야 한다. 그런데 창의력의 원천은 TV시청과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읽기에 있다. 책읽기를 뒤로 하고 TV시청이나 인터넷에 몰두하면 창의력 개발은 고사하고 학력의 저하와 인격의 결함을 초래할 수 있다. 책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주변환경, 학교교육, 대중매체, 도서관, 국가 등이므로 '책읽는 가정', '책읽는 학교', '책읽는 사회', '책읽는 국가'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책읽는 학교’보다는 ‘인터넷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악한 학교도서관은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나은 정보화 교육환경을 갖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인터넷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균형을 잃었으며, 本末이 전도되어 先後가 바뀐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책읽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서관이 없더라도, 혹은 서고처럼 방치되어 있더라도 사서교사가 부임하면 멋진 도서관이 생겨나고 또 살아움직여서 학생과 학교는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신성중고등학교처럼 제대로 된 학교 도서관을 만들어 학생들이 읽을 책들을 충분히 서가에 꽂아놓으면 학생들을 도서관을 좋아하게 되어 즐겨 책을 읽게 된다. 책읽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범학교 차원에서 책 읽어주기 운동, 아침 10분 독서운동, 책의 바다에 빠뜨리기 운동 등 책읽기 장려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여기에 읽는 목적과 책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책읽기 지도를 병행하면 ‘책읽는 학교’가 될 것이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정서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2007년까지 도서관이 없는 학교에는 새로 도서관을 설치하고, 학생 1인당 장서 수도 지금의 배 가량 늘린다는 내용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⁵⁶⁾ 아직은 5년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56) “모든 초중고에 도서관 만든다”, 『동아일보』, 2002.7.26.

참고문헌

- 「大學」. 經1章.
- 김정근 편저. 「디지털도서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서울 : 민음사, 1997.
- 남명자. 「어린이와 텔레비전 환경」. 서울 : 나남출판, 1995.
- 朴有鳳. 「매스 커뮤니케이션」. 서울 : 一潮閣, 1984.
- 백옥인. 「디지털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98.
- 이광주.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 권」. 서울 : 한길아트, 2001.
- 장경철. 「책읽기의 즐거운 혁명」. 서울 : 도서출판 두란노, 1999.
- 집 트렐리즈. 이일남 옮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자」. 서울 : 오리진, 1995.
- Angelo, Bonnie. *First Mothers*. 이미선 옮김.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 서울 : 나무와 숲, 2001.
- Adler, Mortimer J. and Doren, Charles Van. *How to Read a Book*. 독고 앤 옮김.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서울 : 도서출판 멘토, 2000.
- Cullinan, Bermice E.. *Read to Me : Raising Kids Who Love to Read*, 최진 옮김,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자녀를 성공시킨다」. 서울 : (주)대교출판, 1997.
- Staiger, Ralph C.. *Roads to Reading*. 오인환 옮김. 「독서의 생활화」. 서울 : 구미무역(주), 1982.
- Heller, Robert. *Business Masterminds Peter Drucker*. 김한영 옮김. 「피터 드러커」. 한 권으로 읽는 비즈니스 세계의 거장들 1. 서울 : 황금가지, 2001.
- Manes, Stephen and Andrews, Paul. *How Microsoft's Mogul Reinvented an Industry and Made Himself the Richest Man in America*. 이진광·이지선 옮김. 「빌 게이츠 홈치기」. 서울 : 푸른산, 1994.
- Morris, Steve and Svensen, Neil and Meed, John. *The Knowledge Manager*. 미래와 사회 옮김. 「정보시대와 지식관리」. 서울 : 도서출판 시유시, 2000.
- Willars, Glenys. “유네스코 학교도서관 선언”. 1998.
-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 1998.8. ; 천정웅·김영지·김경호. 「청소년이 알아야 할 인권 이야기」. 서울 :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이희수.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실태 및 외국의 정책방향”,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최, <학교도서관활성화종합대책 공청회> 발표문, 서울: 교원징계제심의위원회 대강당. 2002.7.26. ;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urido.net/>}

- 이주영. “교육개혁’은 학급문고에 꽃힌 책에서부터”. 『출판저널』. 제235호. 1998.5.5.
“일본, 독서운동으로 ‘지식강국’ 기반 다진다”. 『출판저널』. 제296호. 2001.2.20.
“책맹 사회 추방하자”. 『시사저널』. 제607호. 2001.6.14.
박승관. “인터넷 보급이 정보화는 아니다”. 『주간동아』. 제257호. 2000.11.2.
“First Lady, First Librarian”. *American Libraries*. February, 2001.
변호승. “‘컴퓨터 수업’ 유용한가”. 『한국교육신문』. 2001.4.2.
“초중고 인터넷망 연결 완료-세계 최초...34만 교사 전원 PC 지급”. 『경향신문』. 2001.4.21.
“사이언스 북스타트운동. 1만원이 미래를 바꾼다”. 『한국일보』. 2001.7.2.
“즐거운 학교 / 재미있는 수업 : 제1부(9) 학교도서관 모범사례”. 『한겨레』. 2001.8.13.
“책갈피 / 책읽기도 유행?”. 『한국일보』. 2001.8.28.
“과학 꿈나무 키우기”. 『동아일보』. 2001.11.1.
“헌책 쌓인 학교 도서관”. 『조선일보』. 2001.11.9.
“TV, 책을 말하다”. KBS 창사 28주년 특집. 2001.3.3.
“TV 책을 말하다 : 제2편. 책읽기의 유혹”. KBS 창사28주년 특집. 2001.3.4. 구성초안.
“미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방안 (2001-2005)」 확정”.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1470번). [http://www.moe.go.kr/]. 2001.11.1.
“사이버 중독이란?”. 사이버중독정보센터(Cyber Addiction Information Center) 홈페이지.
[http://203.240.20.229/pois/front/addiction/addiction01.jsp]. 2001.11.7.
“제7차 교육과정 안내”.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we.go.kr], 2001.11.2.
안양 신성중고등학교 동천도서관 홈페이지. [http://210.104.230.194/library/start_frame.htm].
2002.8.1.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설립취지”.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 홈페이지.
{http://www.urido.net/} 2002.7.15.
‘로라 부시 미국도서관 재단(The Laura Bush Foundation for America’s Libraries)’
홈페이지. {http://www.laurabushfoundation.org/Open_Remarks.html}. 2002.7.30.
“Main Library Subject Departments Programs, August 2002”. 피츠버그 공공도서관
(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Main Library) 홈페이지.
{http://www.carnegielibrary.org/clp/subjprog.html}. 2002.8.12.
부산 K 사서교사의 증언. 2001.10.28.